

日本 觀光經濟學의 研究變遷

한 기 장 *

A Survey of Research History in Japanese Tourist Economics

Ki Jang Han*

요 약

일본의 관광경제학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연장선에서, 경제가 발전된다는 가정 하에 관광의 미래예측을 낙관적인 연구가 있었으며, 관광에 의한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의 논문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지리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논문이 198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관광현상에 대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일본인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관광학회지 및 일본 관광학회 연구보고에 실린 관광경제학의 논문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연대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changes evidenced in the studies of Japanese tourist economics that appear in the research reports of Journal of Tourism Research and the Tourist Academic Meeting along the years. Japanese Tourist Economics began to be conducted since the 1960s. After that starting poin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containing all of them an optimistic viewpoint as regards the future expectation upon the sightseeing, on the supposition that economy would develop into an advanced economic growth term in the 1970s. Consequently, studies focusing on geography economics flourished in the 1980s. Later on, in the 1990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considering various kinds of tourist phenomenon.

* 大阪大學大學院 經濟學研究科 博士課程 在學

I. 서베이의 目的

일본의 觀光白書가 발행되기 시작된 것은 1964년부터이며, 65년도에 관광백서에서 「관광백서의 발표에 즈음하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관광은 1963년 6월에 제정된 관광기본법에서와 같이 국제평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국제친선의 증진뿐만 아니라 국제수지의 개선, 국민생활의 긴장완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戰後20년을 맞이한 일본은, 그 동안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경제발전의 성과를 국민복지와 연결시켜,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여, 세계번영에도 공헌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하겠다.」

한편, 5년후 1970년도의 관광백서에서 「관광백서의 발표에 즈음하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관광은 현대에는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되었고, 단순한 『시간 때우기』나 『物見遊山』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잃어버린 인간성의 발견과 사회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인간사회 속에 앞으로 점점 비중을 더해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관광상황을 보면, 국민관광에서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지출의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도시화에 의한 인간소외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 등에 의해, 관광수요는 매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건전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각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문제로서는 관광증가에 따른 관광시설의 지역적 편중, 亂開發에 따른 자연과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점점 작아지는 국토에서 관광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과제는 현재에도 공통의 인식이 라 하겠다.

1975년도의 관광백서는, 일본인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함께 생활이 윤택해 짐으로서, 물질의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중심型」의 사람은 줄고, 「일과 여가양립型」, 「여가중심型」의 사람이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980년도의 관광백서는, 생활 속에서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석유파동 후 제1위는 「住生活」, 2위 「食生活」, 3위 「레저·여가생활」이었으나, 78년 이후 「레저·여가생활」에 역점을 두는 인구가 증가하고, 「住生活」 다음으로 제2위로 부상하였다. 또한, 20대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기성세대들보다, 「레저·여가생활」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더욱이, 5년후인 1985년도의 관광백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자유시간 관련 지출의 내용이 숙박료·패키지 여행비용의 증가를 반영한 여행관련 비용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부터 해외여행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생활 중에 어떤 면을 중요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83년에 「레저·여가생활」이 「住生活」을 능가하여 1위가 되는 추세를 보였다.

버블경제기인 1990년도의 관광동향에 대하여, 91년도의 관광백서에는 1인당 GNP가 세계최고 수준이 되고, 관광여행 수요의 다변화에 의해 여행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好景氣로 인해 잔업시간 등 노동시간의 증가로, 자유시간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중년층에 대하여는 더욱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향후 생활 중에 어떤 면에 중점을 두겠느냐」는 질문에, 「레저·여가생활」에 중점을 두겠다는, 여가지향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보였다.

1995년도의 관광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円高에 따른, 1994년도의 일본인 해외여행자는 1,300만인을 넘어, 전년대비 13.8%증가한 1,358만인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또한, 컨벤션법에 따라 42개 도시가 「국제회의관광도시」로 認定되었다. 그리고, 1994년 11월 「OSAKA 월드·투어리즘·포럼 '94」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關西국제공항(오사카)이 개항하여 해외교류에 공헌하고 있다. 향후 생활 중에 역점을 「레저·여가생활」에 두는

인구가 35.3%로 1위이며, 30·40대의 남성에게는 「住生活」이 「레저·여가생활」을 우선시 되어 1위이다. 국가도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시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이상은 관광백서에서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일본인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관광학회지 및 일본 관광학회 연구보고에 실린 관광경제학의 논문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연대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II. 1960年代의 研究

1960년대는 60년池田內閣의 소득배가 계획과 62년 전국종합개발 계획의 거점개발 정책이 특징이라 하겠다. 1964년에는 東京올림픽이 개최되어 많은 숙박시설이 건설되었다. 이를 계기로 관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또한 1963년에는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60년대의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徐野信道(日本觀光學會研究報告(이하, 연구보고)創刊號, 1961년)는 [觀光事業의 集中傾向과 分散傾向]에서, 관광입지론의 관점으로 관광자원과 관광객이 찾는 거리범위를 「관광권」이라 정의하고, 그 특징에 관해 복수의 관광자원이 겹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창간호에는 鹽田正志(연구보고창간호, 1961년)의 [觀光事業의 集中傾向과 分散傾向]이 보고되었다. 그는 관광경제의 자연성장률(Gn)과 관광경제 적정성장률(Gw)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방 공공단체의 관광행정에서 Gn > Gw일 때, 「새로운 시설을 필요로 한다.」 Gn < Gw일 때, 신속히 「해당시설의 선전 등의 홍보활동이 충실해야한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지만 Gn=Gw일 때에는 「실제로 극히 희박하겠지만, 시설과 홍보활동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제2호에서 吉永實(연구보고2호, 1963년)는 [所得과 閑暇의 代替彈性]라는 논문 중, 소득과 대체탄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관광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국민경제가 離陸期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성숙기에는 마이너스가 되며 고도 대중 소비기에는 플러스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동과 여가의 배분률을 결정하는 대체 탄력성은, 「효용의 소득 탄력성과 효용의 여가 탄력성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광지의 경영과 관광시책입안의 근거로서, 관광진단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특히 관광공급 주체측에 의한 관광진단의 연구로서, 西村功(연구보고3호, 1965년)는 [觀光經營診斷의 重要性과 診斷方法의 確立에대하여]라는 논문에서, 관광공급측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관광 수요측의 관광진단 연구는 坂本康實(연구보고3호, 1965년)의 [觀光調査의 새로운 方向]이 있다.

제4호의 岡庭博(연구보고4호, 1966년)는 [觀光事業의 收益性과 公益性]에서 「관광사업의 본래목적은 공익성과 문화성에 있다.」고 하고, 「이러한 2가지의 목적은 모순되게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치되는 조건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달성하면서, 관광객에게 만족을 주고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1965년에는 公害防止事業團法, 公害審議會令이 공포되고, 공해가 사회문제가 된 해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小池洋一(연구보고4호, 1966년)는 [觀光政策과 觀光公害]에서 관광정책과 관광공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같은 해 岩崎繁一(연구보고4호, 1966년)는 [生産性 分析의 研究]에서, 노동생산성=(기업수익-중간재 비용)/종업원수로 하고, 노동생산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2부상장 관광회사를 예를 들어, 1963~65년의 2년간에 노동생산성은 2.4배였으며 평균 임금이 약2배가되어, 「인건비1円당의 부가 가치를 나타내는…」 임금배율 逆數는 약 1.2배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고찰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서, 岡庭博(연구보고4호, 1966년)는 [觀光政策의 基本理念에대하여]에서, 1963년 관광기본법의 제정으로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연구한 것이다. 동 논문에서 관광정책의 기본이념으로 「1. 국제관광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2. 국민후생의 목적, 3. 관광사업의 진흥」을 들었다. 그러나 同氏는 결론에서 국제관광은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경제교류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것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관광소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관광의 意義가 이해될 것이다。」 이와 같은 意義가 국제관광정책의 이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제5호에서는 고도 경제성장하의 다양한 관광현상이 고찰되고 있다. 국제항공과 관광사업에 관하여 松村信雄(연구보고5호, 1968년)의 [國際航空과 觀光事業] 논문, 자가용차의 보급과 그에 따른 관광에 대하여 加納直人(연구보고5호, 1968년)의 [motorization과 觀光] 논문, 北海道관광의 토산품에 관한 大野和雄(연구보고5호, 1968년)의 [北海道の 觀光商品] 논문 등이 있다. 鹽田正志(연구보고5호, 1968년)는 [觀光弘報에 관한 考察]에서 어떤 관광지를 예를 들어, 그 관광지 전체의 「이미지 업을 도모하는 것」이 공적기관의 「관광홍보활동」이며, 최종적으로 그 관광지에 여관 등 관광기업이 스스로의 서비스에 관해 「이미지 업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의 관광광고활동」 이다라고 하였다.

1960년대의 특징은 우선 관광 경제학의 연구논문이 絶對數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일반적으로 관광이라는 사회현상이 아직 발전초기였고, 학회지의 발행도 2년에 한번 이었다는 것이 그 원인의 하나였다. 더욱이 고도 경제성장과 東京올림픽, 공해문제 등의 시대배경으로 사회경제, 경영적 문제를 계량적 수법을 이용하지 못하고 문장과 표, 그래프 등으로 고찰한 연구가 많았다.

Ⅲ. 1970年代의 研究

1970년대는 69년의 新全國綜合開發計劃에 의한 거점개발 및 고속도로망의 정비와 田中內閣의 日本列島改造論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1973년 오일쇼크까지는 近藤公夫(연구보고6호, 1970년)의 [觀光레크레이션량의 豫測과 그計劃에 관한 研究] 논문과 近藤公夫(연구보고7호, 1972년)의 [觀光레크레이션량의 廣域的 需要에 관한 豫測研究] 논문 등과 같이 당시로서는 먼 미래의 1985년이나 2000년의 관광수요와 리조트개발을 예상한 논문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점에서 본, 상황예측이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문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전자로서는 석유키고, 후자는 경제성장 위주에서 생활위주로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외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제6호에 津田昇(연구보고6호, 1970년)는 [萬國博覽會와 國際觀光] 논문에서 EXPO '70의 경제효과와,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제관광 視點으로의 경제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同論文의 특징으로 EXPO '70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그 당시 국제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점이다. 같은 제6호에 重野安顯(연구보고6호, 1970년)는 [오키나와觀光의 現狀과 展望] 논문에서 일본에 편입되지 않았던 오키나와에 대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도 경제성장 속에, 관광도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大野和雄(연구보고6호, 1970년)의 [觀光土産品과 그購買行動의 研究]와 山下隆之佑(연구보고6호, 1970년)의 [個性的인 觀光施設에 대하여] 논문과 같이 다양한 관광에 대한 논문이 있었다. 또한, 失田誠治(연구보고6호, 1970년)는 [觀光政策의 目的에 관한 考察] 논문에서 「관광객의 증가」가 「국가발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관광정책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 시기에 풍요로움 속에 인식하게 된 것이 국제관광의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소비」에 의한 「외화획득」이 아니라,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교류관광객의 해외여행에 의한 시야의 확대, 국제감각의 향상이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가 풍요롭게 되어, 가치관의 변화, 여유에 대한 플러스 이미지가 그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제7호에서 失田誠治(연구보고7호, 1972년)는 [觀光事業에서 需要增減에 대한 對應] 논문 중, 관광사업의 특성을 논하고 「需要增減에 대하여」 관광사업의 「대응」 시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관광사업, 관광서비스의 특징으로 「관광서비스는 即時財」이며, 안정된 수요의 확보가 어렵고, 「거액의 기초투자를 필요」로 하고, 비용 중에는 「고정비의 부문이 크다」라고 특징 지었다. 除野信道(연구보고7호, 1972년)는 [國際旅行送出的 規定條件] 논문에서, 해외여행의 「水準을 規定」하는 요인을 「소득수준/(국토면적)^{1/2}」으로 하였다. 또한, 이시기부터 해외여행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구실

이 된 외화유출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고 하였다. 다음으로 松村信雄(연구보고7호, 1972년)는 [觀光에 관한 國際航空의 現狀과 問題點] 논문에서, 전세기속에서 일본의 국제항공 현상과 전망을 하였다. 당시 점보 여객기의 취항에 의한 국제항공의 공급증가에 수요증가가 따라가지 못 하는 것과 세계적인 인플레이로 「항공회사의 경영이 매우 어렵다.」 고 고찰하였다. 그러나 일본에는 국내적으로 30%, 국제항공에는 당시 「2~3년간에 40~60% 해외여행객의 증가가 있었다. 그 배경에는 풍요롭게 된 사회 속의 「餘暇야말로 인간성의 회복에 중요한 시간이다」 라는 「국민적 콘센서스」가 정착되기 시작되었다는 현상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호에서 津田昇(연구보고7호, 1972년)는 [오кина와의 國際觀光의 地位] 논문 중, 1963년부터 1968년에 걸쳐 관광사업의 증가와 「관광객의 유치강화 정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일본에 반환 전(1972년 반환)의 1967년에 관광은 이미 오кина와의 수출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성장산업 이었고, 반환 후에는 점점 관광객이 증가하도록 행정과 관광 진흥책을 세우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木村吾郎(연구보고7호, 1972년)는 [오사카의 觀光施設] 논문에서 당시 오사카의 「여관에서 호텔로」라는 숙박객의 동향을 고찰하였고, 松澤太郎(연구보고7호, 1972년)는 [北海道觀光의 季節性] 논문에서 홋카이도에의 「관광수요는 계절」, 지리적으로는 홋카이도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고 고찰하였다.

제8호에는 淺香幸雄(연구보고8호, 1974년)의 [쇼난(神奈川縣)의 觀光地] 연구와 近藤公夫(연구보고8호, 1974년)의 [史跡觀光計劃의 事例研究] 연구, 鶴田多嘉子(연구보고8호, 1974년)의 [觀光溫泉地帶(有馬온천)에 관한 分析] 연구와 같이, 비교적 좁은 지역의 사례연구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除野信道(연구보고8호, 1974년)의 [觀光 “空間經濟學”의 一般均衡體系] 연구와 같이 관광경제학의 일반균형체계의 분석도 있었다.

제9호에는 足跡洋保(연구보고9호, 1976년)가 [餘暇利用公的宿泊施設의 現狀과 問題點] 연구에서, 「각 관청이 소속 외관단체에 기획, 건설하여 해당단체에 직영시키던가, 지방자치 단체에 운영을 위탁」 하는 「공적」 숙박시설과, 그 건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득증가에 맞추어 선진각국과 일본인의 해외 여행자도 증가하여, 吉村光雄(연구보고9호, 1976년)의 [國際旅行客과 旅行斡旋業의 動向에 대하여] 연구, 大森猛(연구보고9호, 1976년)의 [所得 및 物價水準의 推移와 國際航空旅行客運賃] 연구도 나타났다. 해외의 관광연구도 활발하여 除野信道(연구보고9호, 1976년)의 [海外에서의 刊行物의 一端] 논문과 같은 연구정리도 고찰되었다.

또한 西田修(연구보고9호, 1976년)는 [地域모델의 一考察] 논문에서, 통계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계량 경제적 모델이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지역관광모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부문적 데이터 혹은 질적인 데이터가 이용 가능할 때에는」, 「操作性 있는 수량적 모델을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 관광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분석」을 하였다.

제10호에는 加納直人(연구보고10호, 1979년)의 [觀光行動과 情報媒體] 논문이 있으며, 이 때부터 교통기관과 전기 제품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정보화 관광에의 임팩트를 동 논문에서 고찰하고, 「여가가 있으므로 문화가 생긴다.」라고 하였다. 齊藤光雄(연구보고10호, 1979년)는 [門高와 日本人의 餘暇觀의 問題點에 대하여] 논문에서, 일본의 무역흑자에 의해 「일본인의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세계각국에서 지적하고, 일본인은 좀더 여가를 즐기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으로는 고도성장에 의한 공해문제가 인식되어, 小池洋一(연구보고10호, 1979년)의 [觀光公害에 대하여] 논문과 같이 「관광공해」 「레저오염」에 대한 연구도 있다. 또한 이때에 坂井幸三郎(日本觀光學會誌第10號(이하, 학회지), 1979년)의 [觀光市場에서의 小賣業의 課題] 논문과 같이 여행 소매점에서의 패키지 여행에 대한 매출이 늘어 여행상품의 총매출 중에서 그 비율이 증가되어, 「패키지 여행에 전력을 다하는」 여행 소매업이 증가하였다. 大森猛(학회지10호, 1979년)는 [國際觀光客運賃의 推移와 動向] 논문에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제항공요금은 실질적으로 떨어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국제관광 항공 여객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고찰하였다.

1970년대의 연구특징은, 1970년의 EXPO '70부터 석유탒기까지는 고도 경제성장의 연장선에서, 경제가 발전된다는 가정 하에 관광의 미래예측을 낙관적으로 한, 연구가 보였다. 다음으로, 해외여행에 대하여, 귀중한 외화를 유출시킨다는 이미지가 있었으나, 무역수지의 개선으로 그 목소리가 작아졌다. 또한, 失田誠治(연구보고7호, 1972년)의 [觀光事業에서 需要增減에 대한 對應] 논문과 같이 관광상품의 특성 등을 고찰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IV. 1980年代의 研究

1980년대의 연구는 여행수요와 여행산업의 발전에 따라, 81년부터 일본관광학회연구보고서가 년1회 발행되고, 87년부터는 년2회로 발행되었다.

제13호에서 稻垣勉(연구보고13호, 1983년)는 [호텔投資決定에 대한 헤드닉 어프로치의 適用]논문 중, 헤드닉 어프로치에 의한 호텔 투자결정에서의 타당한 투자액을 고찰하였다. 헤드닉 어프로치란 호텔가격을 호텔의 각 특성에 回歸하며, 각 특성의 세도 프라이스를 구하여 호텔의 각종 서비스質을 금액화 하여, 특색을 갖는 호텔로의 타당한 투자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헤드닉法의 자세한 이론적 설명 및 일본 승용차 가격에로의 적용례는 太田誠(계절이론경제학, 29-1, 1978년)의 [헤드닉 어프로치의 理論的基礎, 方法 및 日本의 乘用車價格에의 應用]논문이 있다. 한편으로 金本良嗣, 中村良平(환경정보과학, 13-2)의 [環境의 經濟的 價値]논문과 같이 대도시 지역의 환경가치에 헤드닉法을 적용하는 연구도 있다. 같은 호에 脇田武光(연구보고13호, 1983년)의 [都市的觀光産業으로서의 旅館, 호텔의 地價, 地代의 乘離率]논문은, 여관 호텔에 관하여 현실경영에서 산출된 이론적 수익환원 地價와, 「토지시장에서의 현실 賣買地價」의 「乘離」를 고찰한 논문이다. 실증연구 대상은 伊熱市와 金澤市이었다. 실증연구 결과로, 일반적으로 「도시인구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매매지가는 높게 되고 상대적으로 수익환원 地價보다 우위에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제14호에 村上和夫(연구보고14호, 1984년)는 [觀光客의 觀光地에 대한 評價]논문에서 관광지, 특히 東京都의 新島를 대상으로 「섬에 오기전의 매력과」 섬에 온 후의 평가가, 각각의 체험에 따라 수치가 되었다. 논문에 따르면, 다시 섬에 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섬에서의 레크레이션 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갖고 섬의 매력을 잘 알고 있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逆으로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한 집단은 레크레이션의 매력에 대하여 정확한 사전 지식이 결여되었던가, 「섬의 매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연구는 위와 같이 수량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관광경제학에 공헌을 하였다. 같은 호에 神頭廣好(연구보고14호, 1984년)는 [레크레이션 地域에 居住者の 어미니티 魅力度 分析]논문에서, 어미니티의 수준과 주택지면적을 설명변수에 포함해 효용함수를 제시하고, 예산제한하의 효용극대화의 조건으로 도심 어미니티와 주택지면적에 대한 미력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에 의해 실증적으로 東京都와 神奈川縣의 7지역에, 도시 주민의 도심 어미니티에로의 강한 지향성을 도표와 그래프로 고찰하였다.

제15호에 小澤健市(연구보고15호, 1985년)는 [觀光地사이클 모델]논문에서 「지역 사이클 가설을 관광에 적용하여」 관광지를 4단계로 분류하여 관광지의 번영과 쇠퇴의 사이클을 분석하였다. 분류기준은 「소득 격차율」과 「성장율 격차」의 2가지이다. 관광지 성격에 따라 관광지를 4개로 분류하고 4개 분류성격의 관광지를, 각각의 관광지는 순서에 따라 가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즉, 「번영한 관광지」로부터 「잠재적 관광개발지」(정체관광지)로, 「뿔개발관광지」에, 그리고 「잠재적 번영관광지」로 분류 고찰하였다. 같은 호에 池田輝雄(연구보고15호, 1985년)는 [觀光모델에 대하여]논문에서 관광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모델화하여 관광주체인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였다. 「효용이란 만족의 양을 의미하며」, 「만족을 채우는 것이 소비이다」 그리고 「만족의 배후에」 있는 것은 「주관적 가치」이다. 場의 변수함수인 가치관 종류의 強調度, 「가치요소의 집합체」로서의 관광재 해당요소인 「단위당 요소 함유량」을 알면, 해당 「觀光財와 競争財」의 지출총액에 대한 배분율은 결정된다. 이와 같이 제시된 모델의 外生的 變因의 변화에 의한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관광재의 가격은 불확실성과 독점성으로 客體가 결정된다」 또한, 시설의 투자액, 최적광고도 객체를 결정해야 한다.

제16호에는 神頭廣好(연구보고16호, 1986년)의 [觀光서비스 集積모델]논문에서, 관광호텔 경영자의 이윤 최대화의 조건으로 관광지를 「관광자원 중심부 번영형 관광지」와 「관광자원 중심부와 그 주변부 동등번영형 관광지, 그리고

「관광자원 주변부 변형형 관광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관광서비스 집적량」은 「관광자원으로부터의 거리」의 함수이지만, 「관광자원으로부터의 거리」도, 「관광서비스 집적량」과 함께 호텔수요함수의 독립변수에 포함된다. 실증연구로서 호텔수요함수를 계산하면, 兩者가 多重共線性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이론모델의 제시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제19호에서 北條勇作, 西岡久雄(연구보고19호, 1988년)는 [經濟活動에 미치는 觀光의 影響]논문 중,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하여」고찰하였다. 미국의 포트랜드市와 같은 대도시이면서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관광이라는 산업은 ①「화폐편익-소비모델」②「소득승수모델」③「고용승수모델」의 3가지모델은 주민 경제상태의 향상에 공헌하고 있음을 실증하고있다. 동 연구의 「기간은 1980년 1년이며」, 「미국 오래곤州의 투입 산출표를 이용」한 결점도 있다. 그러나 동 논문은 일본내의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활성화의 연구가 활발하게 된, 발전방향을 제시한 선구적 연구이다.

제20호에는 池田輝雄(연구보고20호, 1988년)의 [觀光計量모델 序]논문이 있으며, 관광현상을 고찰할 때,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관광지측면에서」보다는 「관광주체로부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관광 수요예측에 대하여도 관광주체로부터의 고찰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광수요는 「소득과 富, 여가시간」에 의하여 결정되고, 「가치관」도 결정요인이며 「가치관을 결정하는」 「환경」도 관광수요의 결정요인이다. 더욱이 「인간의 정서를 일정하다고 한다면, 가치체계는 환경의 함수가 된다.」라고 한다. 따라서 환경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관광에의 「수요구조」를 설명하고, 계량적 모델에 가까운 접근을 하였다 하겠다.

1980년대의 연구특징은, 우선 1981년부터 일본관광학회연구보고가 년1회 발행되고, 연구 논문이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논문수준이 높아 졌다 하겠다. 연구방법에서도 헤드니法과같이 도시 경제학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관광 경제학에 있어서 확립된 이론모델이 적었지만, 이론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 중에서도 관광에 의한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의 논문, 예를 들면 관광임지론 등의 논문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지리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관광경제학의 논문이 198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관광의 인간성회복, 문화창조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円高와 무역흑자의 증가와 함께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해외여행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V. 1990年代의 研究

1987년에 第4次 全國綜合開發政策이 策定되었다. 그 중에서도 多極分散型 사회가 이념으로 등장하여 관광, 리조트 산업에 의한 지역개발이 指向되었다. 1990년대의 논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21호에 福岡正城(연구보고21호, 1990년)는 [觀光資源의 機能的 特性] 논문에서 「관광자원이란 자연, 문화, 사회, 산업 등에서 직접, 간접으로 관광 유인력을 내재시켜 관광행동으로의 목표적 성격을 갖는 것을 총칭」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관광자원의 분류에 관하여 大槪的으로는 『자연자원』과 『문화(인문)자원』, 더욱이 「사회, 산업자원」의 관점에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심리적 조건에 관하여 관광자원대해 매력의 感知度를 연구」를 하고, 이를 위하여 고찰해야 할 것으로 「심적작용」과 관계 있는 것으로, 「지각」 「新奇」 「융합」 「본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관광자원은 관광객에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자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리적, 사회적, 민족학적인 방면에서 연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관광자원의 개발이란」 관광객이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같은 호에 小澤健市(연구보고21호, 1990년)는 [不確性下에서 觀光客의 旅行商品 選擇에 대하여]연구에서, 「관광 서비스는, 「수용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

집에 대하여 관광상품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Knight는 불확실한 현상을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에 관하여 『...확률분포 함수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생각에는 이론상의 곤란성』이 존재한다」고 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같이」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관광객의 종류에 몇 가지 기준이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호에 池田輝雄(연구보고21호, 1990년)는 「社會와 觀光의 關係」연구에서, 「노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광을 「레저형 관광이라고」하였다. 다음으로, 「原地를 알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광을 「문화형 관광」이라고 하였다. 생활과 문화의 比率을 「생활환경의 지표로서」보고, 「지표간에 有爲가 있으면」, 「관광구조」와 「생활환경」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동 논문에는 유럽, 특히 독일의 예를 들어 「개인을 위해 사회가 있다.」라는 생각과 「사회를 위해 개인이 있다.」를 비교하고, 「서유럽에서는 개인을 위하여 사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논문에서 지적한 것은 아마도 사회의 현상이 관광구조를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제22호에 小澤健市(연구보고22호, 1990년)는 「觀光의 經濟分析」논문에서 관광 경제학의 전망으로 「불확실성의 경제학, 정보의 경제학,」 「교육의 경제학 영역에서의 이론상 성과를 경제적 측면의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池田健市(연구보고22호, 1990년)는 「勞動과 觀光」 논문에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분할결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동 논문에서 「인간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당 여가비용」은 「시간당 임금」과 「시간당 여가 지출액」을 고려한 것이다. 사회에서 경제주체는 「기업과 개인이다.」 그리고 기업은 이윤 극대화, 개인은 효용 최대화를 추구한다. 여가시간은 노동시간과 트레이드 오프관계에 있다. 고용의 경우, 유급휴가 형태로 노동자가 여가로서 휴일을 얻었을 때, 기업의 「산출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임금지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가증대에 의한 기업의 「이윤감소에 영향을 준다.」 「기업으로서는 이윤감소를 피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으로서는 여가시간을 독립변수에 포함한 「효용함수의 형태는 여가의 축적에 의한 價値感의 변동에 크게 의존한다.」

제23호에 小澤健市(연구보고23호, 1991년)는 「觀光理論 모델의 후레임에 대하여」논문에서 관광이론 모델의 후레임에 대하여, 「(1)그레버티 모델, (2)관광 공간경제학 모델 그리고 (3)池田모델의 3가지에 한정하여」 그 단점을 지적하였다.

제27호에 杉浦孝雄(연구보고27호, 1995년)는 「森林 및 山林과 觀光의 자세」 논문에서 농림 수산업을 주로하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그린 투어리즘」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산촌에는 도시에 존재하지 않는」 자연자원과 「산촌문화가 많이 존재」하며, 산촌은 농림업을 기반으로 생활하여 왔지만, 「산촌문화가 소멸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자원을 도시농촌교류에 이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동 논문의 구체적 사례로서 고찰한 곳은 山梨縣 小菅村이며, 특히 년1회 열리는 「多摩源流 축제」를 도시 농촌 교류의 지역활성화 사례로 들었다. 인기도 있었던 이 행사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食文化를 중심으로 한 행사」였다. 그러나 「多摩源流 축제」는 참가자로부터 이벤트의 개선요구, 특히 시설개선의 요망이 많았다. 小菅村의 관광자원으로 생각되는 것으로는 「(1)자연자원으로서 지형, 하천, 호수와 동식물」 「(2)문화적 자원으로서 건조물,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 체험 학습관과 사적지가 있고 산천과 산림이 적다.」 이와 같은 산촌의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매년 산촌문화를 도시주민에게 알려, 「산림, 산촌의 이해를 시키는 것이 산림, 산촌의 미래 관광의 전형」 이더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호에 小澤健市(연구보고27호, 1995년)는 「觀光開發 政策의 經濟分析」 논문에서, 「관광개발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경제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관점에서」 관광개발정책에 관하여 4가지 정의를 하였다.

제28호에는 Kozu.H(Journal of Tourism Research, No.28, 1996)의 「The Optimum Height Cost of Hotel Building in a Tourist City」 논문에서, 서비스당 비용 관점에서 호텔의 계수는 어떤 조건하의 몇 층이 최적인가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호텔의 건설비용은 건축에 있어 층수가 증가 할 수록 비용체감이 있는 경우, 서비스당 호텔 비용을 $r(h)$ (h 는 호텔의 층수)로 할 경우, $r(h)/r(1)=\epsilon h$ 라고 하면, $0 < \epsilon < 1$ 이지만, 바로미터 ϵ 가 0.2일 때 상대적인 서비스당의 비용이 가장 높은 층수는 대체로 4층으로 된다. 그러나 $\epsilon=0.8$ 만이 아니라, $\epsilon=0.2$ 나 $\epsilon=0.4$ 인 경우와 관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비용체감이 있을까한다.

제30호에서 大正清雄(학회지30호, 1997년)는 「農家民宿의 特徵과 그린 투어리즘 展開의 課題」 논문 중, 사례연구로서 廣島縣 藝北町の 스키객을 주로 고객으로 한, 농가민박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동 연구에는 우선 진업농가로서

농업체험을 원하는 고객을 숙박시키는 농가민박을 「전업종사, 본래수요형」으로, 「전업종사, 본래수요형」이 이상적인 그린 투어리즘의 理想으로 하고있지만, 이론적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 마을의 대다수 농가는 「겸업종사」로서 스키객을 상대로 한 「파생적인 수요」형이며, 본래의 그린 투어리즘의 이상형으로서는 아니었다. 또한 마을의 민박에 대하여 앙케트 조사로 농가민박과 비농가민박의 有意差檢定을 행하였다.

제31호에서 小澤健市(학회지31호, 1997년)는 [인바운드 誘致政策으로서의 웰컴 플랜21]논문 중, 일본정부(運輸省)가 訪日관광객의 증가와 그 목적으로 한, 환경정비를 위해 「『웰컴 플랜21』(訪日觀光交流倍增計劃)」에 대하여, 「同 提言의 경제적 측면을 국제 경제학의 이론을 적용 분석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동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책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일본의 관광사업은 「要素賦存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 우위성을 발휘하기 쉬운 환경이다.」충분한 고려 하에 각종의 정책에 의해 외국 관광객에의 「관광서비스의 價格一質」이라는 면에서의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비용을 개선해야한다. 또한 일본으로의 국제 관광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歐美각국과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에 대한 「관광마케팅의 충실과 선전활동」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타산업과의 관계로, 訪日 관광객을 위해 정책적인 어려움은 있으며, 「訪日 관광객의 관광수요는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동 연구는 국제 경제학의 관점에서 국제관광이라는 과제를 분석한 연구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같은 호에 中谷朋昭, 出村克彦(학회지 31호, 1997년)는 [森林公園이 갖고있는 夏季 레크레이션(價値)]논문에서, 「北海道 北見市の 富里湖 森林公園을 대상으로」트래블 코스트法, 그 중에서도 개인 트래블 코스트法에의해 森林공원의 「관광 레크레이션 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행한 논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스스로 2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來訪者數를 5월부터 10월까지 한정하여 「평가가 과소 추계 되었다.」 다른 한가지는 트래블 코스트法에의해 외부 경제효과의 평가사례가 적은 점이다.

제32호에는 神頭廣好, 石川修一, 小澤健一(학회지32호, 1998년)의 [高速道路 IC利用의 縣外 觀光旅行者이 유발하는 經濟效果]논문 중, 1990년도의 長野縣 산업관련표와 96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縣内の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이용하는 縣外 관광여행자가 縣内에서, 관광산업의 縣内경제에 미친 산업유발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縣外 관광여행자가 가져다 준 생산액은」 縣内 총생산액의 1.7%가 되었다. 또한 생산유발 효과는, 인터체인지를 이용한 縣外 관광여행자의 縣内에서의 총소비액에 대하여 1.83배였다.

1990년대의 논문은 80년대와 같이 지역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관광지 개발이라는 테마가 많았고, 미시 경제학을 응용한 모델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단, 모델구축이라는 점에서 80년대에 비하여 많은 진전을 보였다. 관광자원론과 관광입지론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후생을 문제로 한 연구도 이 시기에 증가하였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관광현상에 대하여 연구가 시작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하겠다.

VI. 結論

이상과 같이 일본 관광경제학의 중요연구를 연대별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여행, 특히 해외여행은 필수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시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관광여행 자체가 석유위기 전에는 사치품으로 취급되다가, 경제성장과 함께 풍요롭게 되고서 정반대의 생각으로 사회에 인식된 것이다.

둘째, 廣松毅의 2인(CAB出版, 1998년)[巨視經濟學 上]에서 「巨視經濟學의 분석대상은 一國의 경제전체의 움직임이다」라고 정의하였을 경우, 거시 경제학 관점에서 관광산업, 관광수요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가 적다라는 것이다. 일본의 관광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인데, 버블경제가 끝난 이후에도 거시 경제학적인 분석이 적다.

셋째, 1980년대 이후 지역경제학 관점에서 관광경제학의 논문이 많았다. 즉, 관광자원의 입지론과 관광개발 관점으

로 쓴 논문이 많고, 지역발전을 중요과제로 한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해외여행에 관하여,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의 당시 상황을 설명한 연구는 있지만, 해외여행에 경제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적다. 지역 경제학적 관점에서 만이않이라, 해외여행을 전제로 한 경제 이론적인 연구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다섯째, 계량 경제학적 방법으로 한 실증연구가 적다. 그 원인으로 관광산업, 관광수요에 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해외 여행지수나, 특정 관광지의 년도별 관광소비액 등의 데이터가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이유일 것이다. 현재 관광경제학이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계량분석보다도 이론모델 구축이 선행과제라는 것이 현실이다.

參考文獻

- [1] 『日本觀光白書』各年度.
- [2] 『日本觀光學會研究報告』各年度.
- [3] 『日本觀光學會誌』各年度.
- [4] 『季節理論經濟學』,第29卷 第1號,1978年.
- [5] 『環境情報科學』,第13卷 第2號,1978年.
- [6] H.Kozu,(1996) "The Optimum Height Cost of Hotel Building in a Tourist City",
Journal of Tourism Research, No.28.
- [7] 廣松毅외2人,『巨視經濟學 上』,C.A.B.出版社,1998年.

□ 著者紹介



한 기 장

1989.3.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8.4 일본 오사카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입학
현재 동대학원 재학중 (일본 경제·경영전공)

관심분야: 관광정책, 관광경제·경영.

일본 경제·경영.